

주최



주관



Super CLASSIC

2024 ACC 슈퍼클래식

노부스 콰르텟 브리티쉬 나잇

2024.03.06 수 19:30

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

입장료 R석 50,000원 / S석 30,000원 관람연령 7세이상

예매 www.accf.or.kr 1899-5566



©Jino Park



한국 실내악의 역사, 노부스 콰르텟이 선보이는 영국적 감수성

2022/23시즌 노부스 콰르텟은 영국 실내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상주음악가를 지냈다. 네 멤버가 호흡했던 영국의 대기를 오늘 여기서 음악으로 풀어 놓는다.

엘가, 월튼, 브리튼은 아방가르드와 극단으로 치닫던 20세기 음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국적인 아이덴티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니고 있었던 작곡가들이었다. 세 명 공히 관현악에 비해 이들의 실내악, 특히 현악사중주는 과소평가되어왔으며, 재발견이 필요한 걸작들이라 여겨진다. 노부스 콰르텟이 영국의 한복판에서 만난 이들 작곡가들은 어떤 모습일까.

류태형 (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, 음악 칼럼니스트)

프로그램 Program

에드워드 엘가 : 현악사중주 마단조, Op. 83

Edward Elgar : String Quartet in e minor, Op. 83

I. Allegro moderato / II. Piacevole (poco andante) / III. Allegro molto

윌리엄 월튼 : 현악사중주 가단조 (1947)

William Walton : String Quartet in a minor (1947)

I. Allegro / II. Presto / III. Lento / IV. Allegro molto

-인터미션 (15분)-

벤저민 브리튼 : 현악사중주를 위한 3개의 디베르티멘티

Benjamin Britten : Three Divertimenti for String Quartet

I. March. Allegro maestoso / II. Waltz. Allegretto / III. Burlesque. Presto

벤저민 브리튼 : 현악사중주 제2번 다장조, Op. 36

Benjamin Britten : String Quartet No. 2 in C major, Op. 36

I. Allegro calmo senza rigore / II. Vivace / III. Chacony. Sostenuto

유의사항

*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*원활한 연주의 흐름을 위해 악장 간의 박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
*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.

*Please hold your applause until the end of the piece.